

기체는 2026년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박경빈, 장예빈의 2인전 《포테이토》(Potato)를 개최한다. 마치 감자로 촬영한 것처럼 흐릿하거나 뿌옇게 된 이미지를 지칭하는 밈 용어 '포테이토 퀄리티(potato quality)'에서 착안한 이번 전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욱 많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대 시각 환경에서 저화질 이미지를 매개로 이뤄지는 새로운 작가적 진술들을 조명한다. 오늘날 재현의 테크놀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물을 또렷하게 비추고, 또 매끄럽게 기록해내지만 박경빈과 장예빈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각자의 시선에서 발견한 틈들을 따라가며 벌려낸다.

박경빈은 역사와 신화 속에서 반복되어 온 '비행'의 이미지를 밀랍 위에 전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밀랍은 이카루스의 비행을 가능케하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그의 추락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욕망의 실현과 함께 그 한계가 각인되어 있는 물질이다. 꾸덕한 매질 속으로 삼투된 이미지가 투명성을 상실하고, 형태의 왜곡을 겪는 과정은 객관성을 표방하는 기록물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전유되는 조건에 대한 물질적 메타포가 된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차라리 재현된 사건이 수용되는 조건이다. 〈The Réseau on the Elephant〉는 광학적 정밀함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레조 마크(NASA의 카메라 렌즈에 새겨진 규칙적인 십자 무늬)가 달 착륙 음모론의 단초가 되는 아이러니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철심으로 구현된 격자선은 더욱 견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의 월면 사진은 생성형 AI를 거친 뒤 밀랍에 전사되는 이중의 조작을 통과하며 원본으로부터 회복 불가능하게 멀어지는 것이다.

장예빈은 스포츠 중계영상에서부터 일상의 숏폼 비디오까지, 크고 작은 영상 기록물 속 운동하는 신체를 멈춰 세운다. 본래 스크린샷은 빠르게 운동하는 이미지 (moving image)에서 드러나지 않는 세부를 판독 가능하게 해주지만, 에어브러시로 구현한 장예빈의 정지 화면은 이른바 '광학적 무의식'을 가시화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형상이 어떻게 지워지며 모호해질 수 있는지 실험하는 듯하다. 원본의 서사나 맥락으로부터 분절된 이미지는 아크릴 안료의 날카로운 분사를 통해 캔버스 위에서만 성립하는 또 다른 운동의 벡터를 부여받는다. 〈Tender Barrier〉는 익스트림 클로즈업된 권투 선수의 눈동자 한 구석에 상대 선수의 얼굴을 연기처럼 일그러진 윤곽으로 포착하는데, 이는 링 위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한 극적 장치가 아니라, 보는 행위가 신체와 신체의 마주침을 전제하는 정동적 사건임을 환기하는 듯 보인다.

《포테이토》는 이른바 '빈곤한' 이미지를 구제하거나 복권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미지가 형상의 의무에서 풀려나 이지러질 때 발생하는 이완과 긴장을 넘기지 가리킬 뿐이다. 박경빈이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의 환한 미소를 밀랍 속에서 녹여버릴 때 (〈Happy Quarantine!〉), 혹은 장예빈이 불러 처리된 익명의 초상 위로 흰 치열만을 남겨둘 때 (〈Distraction #1〉), 우리는 그 바랜 표면 속에서 낯선 실재를 본다. 가장 심하게 열화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한 감각이 발아하는 것, 이것이 《포테이토》가 주목하는 역설의 순간이다.

박경빈(b.1999)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예술사 과정을, 서울대학교에서 조소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주요 전시로는 <Cough, Love, Doubt>3인전 (2025, 온수공간, 서울), <Hold On>2인전 (2024, COSO, 서울), <All Tomorrow's Parties>기획전(2022, 아트스페이스 3, 서울)등에 참여하였고 머니투데이, 대만 MUZI Art Gallery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미술아카데미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장예빈(b.1997)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5, 서울), 교보아트스페이스(2025, 서울), 유머감각(2024, 서울), 온수공간(2023, 서울), 디스위켄드룸(2022, 서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KICHE presents *Potato*, a two-person exhibition by Park Kyungbeen and Chang Yebin. The show takes its title from the meme "potato quality," a phrase used for images so blurred or pixelated they seem barely legible. In a visual culture where resolution is often mistaken for truth, *Potato* lingers instead with the degraded image. Rather than correcting or clarifying what appears indistinct, Park and Chang trace these slippages, widening the gaps that precision attempts to close.

Park Kyungbeen transfers recurring images of flight from history and myth onto beeswax. Park is less concerned with restaging events than wit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are received and believed. As the images seep into the viscous surface, losing transparency and undergoing distortion, the process itself becomes material metaphor. What claims objectivity reveals its susceptibility to interpretation and appropriation. In *The Réseau on the Elephant*, Park draws from the réseau marks etched onto NASA camera lenses to ensure optical precision. Intended as guarantors of accuracy, these crosshairs later surfaced within moon-landing conspiracy narratives. Recast in steel, the grid reads as fortified. However the lunar photograph it frames, already processed through generative AI before being transferred onto wax, registers as further removed from any stable origin.

Chang Yebin extracts stills from sports broadcasts and short-form video, arresting bodies mid-motion. The screenshot is often assumed to render imperceptible details legible, fixing what moves too quickly to register. In Chang's work, that assumption falters. The aim is not to make the 'optical unconscious' visible. Instead, her airbrushed surfaces hold the image at the point where legibility begins to give way, testing how form erodes rather than resolves. Detached from narrative sequence, the isolated frames are given another vector of movement through the sharp dispersal of acrylic, a vector proper to painting alone. In *Tender Barrier*, an extreme close-up of a boxer's eye contains the opponent's face as a smoke-like distortion at its edge. The scene does not heighten spectacle, instead it renders seeing as an affective encounter between bodies.

Potato operates neither within a redemptive logic nor as a project of rehabilitating the 'poor image'. Instead, it lingers with the tension that emerges when images loosen from the obligation to remain clear. When Park allows the bright smiles of the Apollo 11 astronauts to dissolve into wax (*Happy Quarantine!*), or when Chang leaves only a white grin suspended above a blurred anonymous portrait (*Distraction #1*), a strange real begins to surface. Where the image is most severely degraded, the sharpest sensation begins to sprout. This is the paradoxical moment at the center of *Potato*.

Park Kyungbeen (b. 1999) graduated with a BFA in Fine Arts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earned an M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exhibitions include Onsu Gonggan (2025, Seoul), COSO (2024, Seoul), and Art Space 3 (2022, Seoul). Park'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Money Today, MUZI Art Gallery (Taiwan), and the Saint Petersburg Academy of Arts.

Chang Yebin (b. 1997) holds a BFA and an MFA in Western Paint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Chang's work has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at Buk-Seoul Museum of Art (2025, Seoul), Kyobo Art Space (2025, Seoul), Humor Garm Got (2024, Seoul), Onsu Gonggan (2023, Seoul), and ThisWeekEndRoom (2022, Seoul).